

니버의 크리스천 리얼리즘

현대의 윤리, 특히 정치 윤리를 다룸에 있어서 라인홀드 니버 교수의 사상을 빼어 놓을 수 없다. 현존하는 미국 신학자 가운데서도 미국의 정치 경제의 발전에 따르는 모든 윤리 문제를 거시적으로 다룬 신학자는 니버 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일차 대전과 이차 대전을 거친 뒤의 세계적인 위기, 그리고 미국의 경제 공황에서 벗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을 냉철하게 비판하였다. 유럽의 위기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도 그는 결코 사변적인 교의학자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교역을 맡은 젊은 목사로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 지대에 전개되는 미국 자본주의의 냉혹성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목회에서 손을 떼고 그는 미국이 당면한 세계적인 과제와 딜레마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의 위협에 마주 서는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절감하고 정치 윤리에 대한 연구와 발표에 힘을 기울였다.

여기서 니버의 생애를 서술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그의 사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그의 크리스천 리얼리즘이 현재에는 새로운 신학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신의 죽음, 세속화 등등의 극단적인 신학 사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의 윤리 사상은 이제 전시대적인 인상마저 주고 있다. 하지만 정치의 윤리성을 탐구하는 학도에게는 아직도 그의 사상은 고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니버는 유럽의 역사에서 세 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는 로마 제국의 몰락이고, 둘째는 봉건주의 몰락

과 그리고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발생이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적인 문명을 배경으로 번영했다가 그 몰락하는 시기에 와서는 기독교적인 진리마저 의심을 받는 경지에 빠졌다. 어거스틴은 몰락하는 로마 제국을 눈 앞에 보고 <신국론>을 저술했다,

중세기의 서구 사회는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제시된 전체 위에 세워졌던 것이다. 중세기의 유럽 사회가 그 절정에 도달했을 바로 그 무렵에 벌써 새로운 사회적 요소를 생활 질서 안에 유지할 수 없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것은 날로 팽창해 가는 상업주의였다. 여기서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었다. 혁명과 개혁의 연쇄적인 발생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와,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다. 현대 문명은 부르조아 계급의 지도 밑에 이루어진 문명인 것이다. 14세기에 시작되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자본주의 문명이 발전했지만 20세기 초엽부터 이 자본주의 문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대사는 유럽 문화의 몰락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새로운 기술 문명의 발달이다. 기술 과학의 발달이 세계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럽의 침략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지고 말았다. 현대 공업 사회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등을 중심한 사회적인 평형을 성취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빈부의 차별이 오히려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God's design and present disorder of civilization, pp. 17-18)

그리하여 이 위기가 국제간의 긴장을 조성할 정도로 확대되어진 것이다.

문명의 붕괴와 문화 생활의 혼란은 정신적, 정치적 생활에도 영향

을 불러 일으켰다. 문명은 문화의 몸과도 같은 것이다. 문화는 문명의 정신이다. 문명이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메카니즘을 말하며 인간은 이에 따라 생활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철학적, 심미적 그리고 종교적인 전체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문화는 현대 문명의 혼란과 붕괴를 제대로 관찰 분석할 수 없으리만큼 문명 자체 속에 잉키어 들어 갔었다. 낙관적인 문명관을 가진 문화가 어찌 인간을 절망 속에서 구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현대 문화의 자연주의적인 전체가, 역사의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를 초래했다. 인간의 자유가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 악마적인 충동을 자아내게 하였다. 일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현대인은 전쟁을 발전적인 진보가 파괴적인 중단 상태에 돌입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믿었던 것이다. 현대적인 낙관주의는 자연과 역사에 대한 견해에서 비롯되었고 인간의 정신의 전체 차원을 측량하는데 실패하였다. 보편과 특수, 예고이즘과 공동체간의 상충은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것이 되어서 현대 문화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비극을 자아내게 된 것이다. 이 비극의 원인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에서 언제나 재현되기 때문에 비극은 계속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현대의 부르조아 문명은 인간, 역사, 자연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때문에 그릇된 망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A Faith for history's Greatest Crisis, p. 122)

니버는 현대의 위기를 이처럼 분석하고 나서 두 가지 형식의 유평파 사상을 들어서 비판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정신적 빈곤 때문에, 이 시대의 교리나 신조 가운데도 현대의 위기를 예기하고 경고한 귀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니버는 개탄했다. (Faith

and History P.I). 연성 유토피아 사상 (Soft utopianism)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진과 발전을 통한 인간 사회의 완성을 꿈 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성 유토피아 사상 (Hard utopianism) 은 러시아의 혁명에서처럼, 혁명을 통한 완전주의라고 볼 수 있다. (Two forms of utopianism Christianity and Society, vol. 12, p. 6)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유주의 (Liberalism)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해석이 있다. 첫째는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로서 봉건 제도의 역사를 가지지 않은 나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보수주의 국가의 철학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자유보다 안전을 선택하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통제 밑에서 경제 활동을 허용한다는 자유주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일종의 맹목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발전에서 인간이 무지에서부터 해방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삶의 상층에 뿌리를 보지 못한다. 낙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인간, 역사, 자연에 대한 망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잘못된 모든 계몽시대의 정치적인 오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니버의 지론인 것이다. ('The Blindedness of Liberalism' Radical Religion, p. 5; Liberalism: Illusions and Realities, p. 12)

현대의 자유주의의 망상에서 마르키시즘의 반란이 파생되었다. 이 경성 유토피아 사상은 새 종교의 예언자로 등장하여, 도덕적인 승려, 군주의 계급을 형성하였다. 자아의에 가득 찬 잔인성을 발휘하고 인간의 이해와 사상의 유연성을 배격하는 것이다.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pp. 106~107) 마르키시즘의 정치관과 자유주의의 정치관은 상반되는 것이지만 도덕적 종교적인 견해에서는 둘이 같은 것이라고 니버는 주장한다. 둘이 다 인간의 의지

그리고 교만한 심판을 이해하지 못한다. 현대의 Hybris는 인간이 자기 자유를 과대 평가하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숙명에서부터의 구원의 표현이다. (Faith and History, pp. 4~85) 그러나 현대인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기독교적인 죄악관은 사실 과거에 있어서 올바른 정치 사회 이론에 큰 공헌을 했었다. 아무리 완벽한 정치적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인 제도도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와 죄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자주 강조되지만 현대인은 어떤 다른 신조나 교리보다 이 죄악관을 철저하게 그리고 알뜰히 잊어 버리려고 애쓴다.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p. 16)

니버는 소위 과학적인 정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서술한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에서 그는 소위 객관적인 사회 과학이나, 과학적인 방법론이 가지는 방식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도시 현대인은 진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니버는 지적하고 있다. 모든 과학적인 방법론에도 늘 이념적인 채색이 따른다. 그러기에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 분야의 차별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검토하게 한다. 먼저 현대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려면 자연과 역사의 차별, 그리고 역사 안에서의 과학적 탐구에 따르는 인과 관계를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로버트 마키버가 지적한대로 어떠한 사회 과학이라도 지질학적, 지리학적, 기후,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을 다 고려하지 않고서는 엄밀한 사회 과학적인 결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아무리 객관적인 사회 과학도 역시 관찰하고 분석하는 입장이 어떤 이해나 이념적인 성격을 완전

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로삭하 테스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역사에는 결코 단순한 반복 형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미국의 몰락을 비유할 수 있어도 사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토인비가 중세의 동서 기독교 관계를 현대의 유럽과 동방 문화 관계에다가 비유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과학적인 유추에 지나지 않는다. (The Self and Dramas of History, p. 45) 자연을 안다는 것과, 역사 안에서 내 이웃을 안다는 것과의 차이를 굳이 찾는다면 자연 인식에서는 마음(mind)이 중심이 되지만 역사 인식에는 자아(Self)가 인식의 중심이 된다. 자연 인식보다 역사 인식에서 자아가 깊이 영겨들어서, 일종의 양가주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Discerning the Signs of Times, pp. 5-8)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사회 과학에도 그 뒤에는 숨은 도그마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자체라는 것은 자연의 인식이 아닌 역사 인식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과학의 숨은 도그마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James B. Conant 교수가 말한 Conceptual Schemes 라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과 실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Conceptual Schemes 의 상호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늘 재검토하고 수정을 요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역사를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학적인 전제만으로서 인간성과 역사의 차원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니버가 거듭 주장하는 점이다. 현대의 학인들은 인간을 늘 평면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인간, 역사의 높이와 깊이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p. 4)

니버의 정치 사상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권력 구조에 대한 그의 견해와 권력 구조에 따르는 부패에 관해서 니버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어떤 사회 단체들 거기에는 사회적인 강제성이 따르게 된다. 공동체의 내부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려면 어떤 유기적인 강제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공동체에는 권력의 통치가 있는 동시에, 그 공동체에 주어진 생명력과 사회적인 정황과의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권력과 집약적이며 중심적인, 조직적인 힘이 모든 공동체에 따르는 권력의 성격이다.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개인의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에 대항하는 개인이 그 권력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데서 긴장 상태가 빚어진다.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권력의 조정을 한다고 사랑이 여기서 제거되지는 않는다. (*Human Destiny*, p. 265) 사랑이 없는 긴장 대립은 견딜 수 없는 압력을 자아낸다. 그러나 권력의 조화, 힘의 밸런스가 없는 사랑은 불의의 관계에 떨어지기 쉽거나 불의를 감추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긴장이 드러나면 충돌로 발전되기 쉽다. 이 충돌과 긴장의 원리가 또한 무정부의 원리가 된다.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pp. 26-27).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종교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릇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첫째는 정치와 종교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견지이다. 이것은 정치 문제에 대하여서 종교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도피적인 태도이다. 다음 둘째 그릇된 대답은 정치와 종교를 똑 같이 보거나 혼동하는 일이다. 그것도 그릇된 태도인데, 정치에는 정치적 이해 관계와 정의의 복잡한 문제가 엉켜 있어서 종교 도덕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

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Christian Faith and Political Controversy' Christianity and Crisis, Vol. 12, p. 97)

정치 분야에 있는 이러한 도덕적 애매성 때문에 기독교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늘 혼란을 느낀다. 그러기에 정치 문제에 관한 한 어떤 특정한 기독교적 정치를 가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라고 니버는 주장한다. (Christian Faith and Social Action., p. 229) 그렇다고 실제적인 문제에서 종교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크리스천은 인간의 사회 생활의 현실의 바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한다. (Christian Faith and Social Action, p. 22) 바꾸어 말한다면 정치의 매춘부 노릇을 하는 정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 정의를 인간의 냉소주의와, 감상적인 백일몽에서 구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한다.

기독교 사회 윤리의 근본 목적은 복음에서부터 명확한 사회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의 공동 사회 생활에서 이를 다루는 데 있다고 니버는 주장한다.

그러하여 인간의 집단 생활에 따르는 위기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회 윤리의 근본 과제라고 하였다. (Christian Faith and Social Action, p. 236,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pp. 61-62)

제한된 지면에서 니버의 윤리 사상을 온전히 다루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의 크리스천 리얼리즘이 자본주의의 허망과 공산주의의 그릇된 약속을 꿰뚫어 보고서 정치적, 경제적인 분석 비판을 했다는 것은 그의 신학 사상의 위대한 공헌이라고 할 것이다.